

한국안보의 현실과 과제*

대통령 정치특보 이 홍 구

1. 서 론

이종구 육군총장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 교수 여러분!

오늘 우리 국방의 새 요람이된 계룡대, 저로서는 처음으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신문에서 본 바와같이 어제 판문점에서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되었던 미군의 유해 다섯구가 우리 쪽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여러가지 감회에 잠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이러한 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대미 전략을 개발하려는 복귀의 새전술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렀다고 옛날을 회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6.25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 우리군에서 준비하신 헬기를 타고 이 계룡대에 와서 훌륭한 육·공군본부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 안보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나라가 되었나 하는데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년은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에서 크게 기념할 일이 많은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이 6.25동란 40주년입니다. 그런가하면 해방 45주년입니다. 또 우리가 해방 45주년이라고 하는것은 동시에 분단 45주년이 됩니다. 이렇듯 역사적인 전환점, 우리 역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사운영분석학회가 열리고 이자리에 산업을 대표하신분들, 학계를 대표하신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을 이끄시는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해서 우리안보의 장래에 대해서 더불어 생각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자리에서 제가 우리안보의 당면과제와 또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것

* 本記事는 1990年 春季學術大會時 發表된 基調演說文의 內容임.

은 참으로 본인으로서는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2. 본 론

지금 제가 우리역사가 한단계 앞으로 나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 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경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 할수 있겠습니다. 세계사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에서는 200년에 걸친 근대사가 일단 막을 내렸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 마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애긴가 하면 200년전, 즉 1789년에 불란서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란서 대혁명이 산업화와 대중화를 가져오는 근대의 막을 올렸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작년, 즉 1989년에 전유럽을 휩쓰는 혁명의 물결이 지나갔습니다. 동독이 바뀌고 루마니아가 바뀌고 헝가리가 바뀌고 그리고 결국은 소련 자체가 바뀌는 대변혁을 우리가 작년에도 보았습니다. 이 변혁이 어떤 의미에서는 200년에 걸친 근대사의 막을 적어도 유럽에서는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대사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산업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많은 인구가 늘고 하는 근대세계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화를 누가 얼마나 더 가질수 있는가 하는것 때문에 모든 사회는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계급간의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걸음 나아가서 어느나라가 얼마만큼 더 부를 획득 할 것인가 하는 경쟁 속에서 국가간에는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갈등은 계급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것이다라는 이론을 낸사람이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레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지난 100년의 역사는 이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그 방향이 크게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던 200년의 역사가 바로 마르크스가 그 이론을 창출해 내었던 독일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레닌이 세운 소련에서 더이상 레닌주의체제의 나라를 이끌어 갈수 없다는 고르바초프의 판단 때문에 작년에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세계사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변혁이 오게 된것인가?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경제의 발전이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할때만 가능하다 한것

이 역력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모든 정치체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것은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할때만 가능 하다고 하는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재화, 재물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화만을 놓고 계층간의, 계급간의, 국가간의 갈등을 경험했던 과거 200년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어도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재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때 모든 국가는, 모든 계층은 함께 잘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인류에게 전파 되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사 200년이 막을 내리게된 의의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는, 바로 근대사를 주도한 유럽에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타 세계에서도 과연 그러한 근대사의 종말을 고하는, 한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선진 유럽과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넓게봐서 세계에서 내군대가 생겼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지난 주 일 서울에 모였던 세계지도자들도 활발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에 도달한 과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네지역이 어떤지역인가 하면

첫째는 라틴 아메리카. 둘째는 남구라파, 남구라파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등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세번째 우리동양에서의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구라파의 여러나라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라들을 다 비교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라틴아메리카의 선진화, 근대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민주화도 실패하였고 더군다나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구라파의 여러나라들, 스페인, 포르투갈등은 바로 이웃인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모든 변혁의 막을 올린 동구라파와 소련은 과연 어디로 갈것인가? 이것은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동양, 특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바로 한국이 이러한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눈부신 성공사례라고 믿고있습니다. 그 성공을 보여준 것이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바로 이 올림픽이 상징하는 우리의 성공,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부해도 좋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도 바로 근대화, 민주화의 모든 소신을 바탕으로해 새 시대로 접어들려는 그러한 도약의 출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앞날에 대한 국가운명의 여러가지 정책과 방향을 찾아야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특히 우리의 안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한두가지 지적할 수 있는 큰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미 육군총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지정학적인 고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정학의 복귀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지정학의 복귀는 무엇이나? 지난 45년동안 우리는 냉전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냉전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를 양분한, 그러한 대결구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결구조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려서 침예한 대립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세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만을 중심으로 우리의 적과 그 적의 동맹국들을 대하기만하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냉전적 대결구조는 급속하게 완화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와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소 정상회담이 바로 이렇게 냉전구조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냉전구조가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는 새로이 세계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이 어떤것인가? 라는 것을 새로운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볼 때 우리는 큰 나라에 둘러쌓인 작은 나라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절대적, 객관적 수치로만 본다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세계 180개 국가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10% 안에도는 그야말로 손꼽을 만한 큰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나라다 라는 것을 지도를 펴놓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나라는 세 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11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1억이라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인구 학자가 실감을 나게 하는 계산법을 사용해서기술한 것을 보니까, 중국사람은 4사람씩 즉, 4열로 천안문 앞에서 오늘 행진을 시작하면 무한대로 그행진을 계속 할수가 있습니다. 즉, 11억이라는 인구는 그 행진이 끝날때 쯤이면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또 줄의 제일 뒤에서 따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명씩 서면 어떨런지 몰라도 네명씩 서면 무한대이다 라고 계산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인구를 가진 중국이 우리의이웃에 있습니다. 세계지도를 보면 저 위쪽의 땅은 대부분 소련땅 같이 보입니다. 즉, 세계에서 국토가 제일 넓은 소련이 또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 대마도 쪽을 보면 일본이 있습니다.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게 큰 세나라 사이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을 다시한번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

니다. 백년후 우리가 다시 지정학적 요인을 놓고 국가의 장래와 안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 한것입니다.

백년전과 백년후와의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지정학적 요인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이 커졌다 하는데서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백년전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백년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지키고 좌우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많은 실력도 쌓은것이 사실입니다. 백년전 우리는 담을 높이 쌓고 외부를 보지 않고 고립하고 숨으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쇠국정책을 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식민지화를 가져오고 그에 이어 분단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백년후인 오늘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담을 쌓은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 담도없이 세계 어느곳에 진출할 수 있는 외부 지향적인, 국제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구의 7%인 500만의 우리 동포가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185만, 미국에 110만, 일본에 70만, 소련에 45만등 이런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년후, 오늘의 한국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지정학적 요인을 볼 때 우리가 힘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 대단히 큰 나라다 하는것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러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고,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켜가고, 나아가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고도 번영되고 민주적인 국가를, 그리고 통일을 이룩해서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되는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어제 판문점에서 미군의 유해 다섯구를 이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한·미 관계에 대하여 한말씀 삽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945년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미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8년 우리가 독립하는데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년전 6.25사변, 그 어려운 난국에서 미국은 우리와 더불어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5만 3천이라는 사상자를 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까지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맹방으로서 어깨를 같이 하고 함께 이 어려운 난국에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직후에 독일의 초청으로 통일원장관으로서 베를린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무엇이 이러한 독일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가능케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은 독일의 지도자들에게 던진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적지않은 독일의 지도자들이 여러가지 요인을 들면서도 그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드는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지난 45년 동안 미군이 확고한 입장을 유럽에서 견지하고 NATO를 통해서 단 한치도 소련에 양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의 변화도 가능했고, 독일의 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국민은 미국에게 크게 고맙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결코 미국의 그동안의 공헌, 또 오늘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고맙다 하는 우정의 표시일 뿐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바로 큰 나라들 중국, 소련, 일본에 에워쌓인 우리의 안보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먼 나라 입니다만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을 세워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세계사적인 흐름, 또 그 가운데서 지정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으면 안될것이 무엇이나 하면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오늘날 한반도는 아직도 예외적인 지역이 되어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계 긴장완화와 함께 우리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동족들이 서로 싸워야 되는 비극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얻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한반도에는 침예한 대립이 이 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북한체제 즉, 가장 대표적인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체제는 그 전체주의적 성격 때문에 즉,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이념, 하나의 이념, 하나의 정당 그리고 모든 국민의 완전한 고립과 통제, 이러한 전체주의적 수단을 통해서 지난 45년동안 하나의 체제를 유지해 오는데 어느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즉, 일인독재와 일당독재 그리고 전 국민의 통제, 고립, 이러한 요인들이 그들의 체제안정을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와 개방화로 향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응하는데는 너무나 많은 저해요인으로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것을 오늘날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적응을 하고 싶어도 적응을 할 수 없는 체제적 성격 때문에 오늘날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4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일성의 소위 시정연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만 바로 변할 수도 없고,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적응할 수 없는 그들의 어려움, 이것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은 가공적인 즉,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가공적인, 국민을 호도하고 국내외의 위장전술을 펼치는 방법을 내세우고 있는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은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던 1,000여명의 해외

유학생들도 다 북한으로 강제 복귀 시켰습니다. 이렇듯 교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류의 화제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남쪽의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교류를 하지 못한다 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방에 대전차 장벽은 6.25와 같은 북괴의 탱크에 의한 남침을 저지하려는 벽입니다. 이것은 허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왕래는 우리 국민의 자유왕래,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원하는 것이지 탱크의 자유왕래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탱크의 자유왕래를 보장해 달라 하는 얘인데 이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북한이 자유왕래를 비롯한 교류의 문제를 어떻게든 앞으로 밀어내고 가공적인 콘크리트장벽의 문제로 대처하려고 그러는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진지한 대화를 위해서 정상회담, 총리회담, 국회회담 등 모든 회담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 응할 수 없는 북한이기 때문에 이른바 통일전선전략 즉,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얘기해야 된다는 하는 통일전선전략이라는 위장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방화,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UN에 하나의 좌석을 가지고 가입해야 되겠다든가, 또는 미국과 단독으로 회담을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위장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큰 진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북한에게 빨리 준비를 해서 이 새상황에 적응해 한반도만이 세계사의 흐름속에 고립되는 비극을 초래하지 말고 뒤늦게나마 우리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민족이면 남에 살던, 북에 살던 또는 해외에 살던간에 우리 7천만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자 하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의 상황이 반드시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석을 신문이나 기타 언론에서 보실 때 북한이 오늘날 끔찍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어쩔줄 모르고 있다라는 해설을 많이 읽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상황이 나쁘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보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평양에서 김일성이 앉아서 보고있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첫째 남쪽 즉, 한국내 사정을 본다면 민주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들의 데모라든가.

노동쟁의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볼 때 남한사회는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다하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점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하는 뉴스를 들 때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미군은 결국은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에서 작년 6월에 천안문사태로 강경노선을 다시 택한데 대해서는 중국이 뒤늦게나마 다시 북한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 했으므로 이것이야 말로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개혁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내다보는 세계, 북한이 내다보는 대남정세는 반드시 북한에게 절대절명의 위기라고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환상은 끝없이 계속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한 북한의 판단, 북한의 환상 그리고 북한체제가 지닌 어쩔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빠른 시일내 우리 한반도내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상황의 이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편으로 이러한 대결구조 속에서 우리체제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단한순간이라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태세로 상황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대결구조를 10년, 20년, 100년을 끌고 간다는 생각에서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기 안에 즉, 20세기가 가지전에 이러한 대결구조를 완화시켜서 21세기에는 우리 7천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가지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밖에 없는것이 상황의 이중성이 우리에게 부과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지난 2~3년동안 추구하고 있는 민주화 과정, 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것은 무엇인가하면 우리 국가적, 민족적 목적의 다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모든것을 교조적으로, 모든것을 단순화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는것 같이 이것을 이념화하고 이데올로기화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가 아니고 꽤 여러개가 된다고 하는 목적의 다중성을 이해할 때만 민주화는 착실히 진행 시킬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을 반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꼭 제도화 하는 민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대체할 수 있는 목적 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국민의 복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수있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 목적, 이것은 절대로 희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화의 민주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는 계속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30년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돌아 볼 때 왜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나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40년전 6.25사변당시, 또 그후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난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않됩니다. 지난주 서울에 모였던 세계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나누었던 공동의 관심사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계 곳곳에 가난이 계속될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하는데 대한, 지구에 함께사는 인류로서의 공동의 관심사를 그 사람들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에 스물 다섯개 나라, 그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오늘날 식생활을 통해서 흡수하고 있는 칼로리가 1965년 즉, 25년 전보다도 저하하고 있습니다. 즉, 25년 전보다도 못먹고 사는 나라가 사하라사막 이남에만 스물 다섯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의 몇 나라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인구의 30%정도가 AIDS를 비롯한 질병 때문에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세계보건기구가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년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지역에는 계속되는 악천후 때문에 농업이 점차 피폐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돌아다 볼 때 지난 30년동안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얼마나 큰 경제를 만들었는가 하는데 대해 자부심도 갖고 동시에 이 경제력을 계속 키워 나아가야만 우리의 민주화도 가능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화도 가능 하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단군이래 우리나라에 지은 집이 500만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90년대 그와 똑같은 500만호를 지었을때 즉, 우리나라에 1,000만의 주거단위가 생겼을때 의식주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동안에 과연 500만호를 지을 수 있을것인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공화국 정부가 200만호를 지을 것입니다. 나머지 6~7년 동안에 300만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20세기가 가지전에 반드시 의식주의 문제,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주택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동시에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서 북쪽의 우리동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까지 즉, 7,000만 우리겨레가 세계에서 자랑스럽고 또 여유있게 살수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꼭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 경우에 제가 자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자원 뿐 아니라 그 무엇 보다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이 모든것을 우리가 그냥 자원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동력화 하고, 조직화 하고 그것을 능률화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근대세계가 후근대로 가는 기술과 과학을 100% 동력화하여 20세기 우리국민이 겪었던 100년의 한을 풀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게 볼 때 우리 안보의 문제는 40년전에 단순히 복귀를 상대로해서 그 침략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려 한다 하는 그러한 면에만 국한 되는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안보개념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지켜가느냐 하는 총체적 안보의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민주화도 하고, 복지화도 하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제는 군과, 관과, 산업과, 농업과 또 학문하는 사람들과 모든 국민의 힘을 합치는 그 연계조직을 확실히 해야 될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또 정부 안에서도 우리 외교를 맡은사람, 우리 통일을 맡은사람, 우리 경제를 맡은사람, 그리고 우리 국방을 맡은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총체적인 연구구조가 꼭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년전 나라를 잃었던 슬픔, 또 45년전 분단을 경험했던 슬픔, 그리고 40년전 우리끼리 전쟁을 했던 아픔, 이 모든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공동체를 불과 9년후에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꼭 이루겠다 하는 희망찬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모든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는 군사운영분석학회도 그러한 민족의 과제 우리의 포괄적 안보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생각하는 노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학회가 많은 결실을 내기를 기대하고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뜻을 함께 하고 바로 이 계통대가 우리 국가안보의 새로운 요람으로 더욱 발전하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